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Emotional & Social Preparation for Aging on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송기영

오산대학교 실용사회복지학과

Kee-Young Song(newsky@osan.ac.kr)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 가능성을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개념 정의하여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의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4차 본조사와 3, 4차 부가조사 자료로부터 추출한 50세 이상의 장애노인 506명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v2.16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하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어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노후준비 | 장애노인 | 성공적 노화 | 사회적 지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ake a look at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as the aging population grows. For this purpose, psychological and social concepts were defined for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It was also verified that the effects of emotional & social preparation for aging on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an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506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who are over the age of 50. They were originally extracted from the 4th main survey and 3rd, 4th additional survey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For data analysis purposes, SPSS 23.0 and SPSS PROCESS macro v2.16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ly, emotional & social preparation for aging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direct influence on successful aging the elderly with disability. Secondly, emotional & social preparation for aging has a indirect effect on successful aging through social support.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d the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al suggestions to enhance the preparation for aging and social support.

■ keyword : | Preparation for Aging | Elderly with Disability | Successful Aging | Social Support |

I. 서론

최근 고령화는 우리 사회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7년 8월 기준 이미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었고[1],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2].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장애인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65세 이상 장애인구가 2005년 32.5%, 2008년 36.1%, 2011년 38.8%, 2014년 4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 장애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전체적인 인구의 고령화와 맥을 같이 하며, 장애인들의 수명이 과거와 달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4].

장애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장애인 본인 및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나[5],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모두에서 그동안 주요 대상으로 논의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노인문제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으로서의 특수한 욕구에 더하여 동시에 장애로 인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특히 노인과 장애의 이중적인 어려움은 독립적인 생활과 삶의 질에 위협을 가져오게 되어 장애인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의 성공적 노화를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6].

1990년대 들어서면서 신체적 건강을 성공적 노화로 규정하던 협의의 시각에서 벗어나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와 삶의 만족이 높은 상태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7]. 장애인노인이 장애와 노화로 인한 한계를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 사회적으로 새로운 의미의 성공적 노화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6]. 장애인노인의 성공적 노화란 신체적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주어진 상황을 능동적으로 이겨내고, 환경 속의 인간으로서 변화된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고 대처하는 것이다[7][8]. 이러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후준비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노후문제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인데,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

준비나 은퇴설계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건강이나 소득, 경제적 상황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집단은 노후준비의 대상으로서 취급되지 못한 것이다[9].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더불어 노후준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노후준비는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갖추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10],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며[11],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노후준비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경제적,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로 구성되는데[12][13], 장애인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노후준비 또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연관 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노후준비를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심리사회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는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하고, 환경에의 적응력을 높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생애주기보다 내외적 자원의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어[14],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14-16], 강화된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18].

이상을 종합해보면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사회적 지지, 성공적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 및 가설이 가능하다. 즉,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를 잘 하면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고, 높아진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어디까지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 성공적 노화간의 직접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일 뿐, 과연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성공적인 노화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그 관계를 이어주거나 끊어버리는 중요한 매개역할

을 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비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통해 이러한 추론이 장애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즉, 비장애노인에게 나타나는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 및 이 둘 사이에 사회적 지지의 매개역할이 장애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수준과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

장애노인의 개념정의가 일치되지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장애노인은 고령화된 장애인(aging with disability)과 노인성 장애인(disability with ag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령화된 장애인은 젊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노령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고, 노인성 장애인은 노인이 되어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19][20]. 이러한 분류의 기준이 장애발생 시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양 집단은 장애의 원인 및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노화와 장애는 생애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연속적 개념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영역과 노인복지 영역의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으로 엄격히 구분되기 보다는 연속체적 개념으로 이해하여[20] 장애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21][22].

장애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는 실정이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령나이 기준을 보면 미국은 55세와 40세, 영국은 65세와 50세, 일본은 65세와 60세로 보았을 때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령의 기준이 5세에서 15세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3]. 따라서 장애인의 조기 노화, 이차적 상태, 이로 인한 심리·사회적 제한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일반적 고령기준인 60~65세보다 10~15세 낮은 50세로 연령 기준 설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신체 상태에 초점을 맞추다가 심리적 특성, 사회전반의 문화적 요인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확대되었다[24]. 선행연구에서도 심리·사회적 변인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25], 주어진 객관적 환경이 어렵더라도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신체 기능적 측면을 뛰어넘어 심리·사회적 개념으로 확대 적용한다면 장애인에게도 성공적 노화의 길을 열 수 있다.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란 환경 속의 인간으로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주어진 상황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7][8]. 즉 장애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제약은 극복하기 위해 강점을 활용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과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고 대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이웃,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타인과 더불어 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여 정서·사회적 영역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26].

노후준비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가운데, 노년기의 변화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할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 건강관리와 경제적 준비를 생각하게 되며, 실제로 노후에 있을 건강의 약화 및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시되어왔던 것이 경제적 노후준비와 신체적 노후준비였다. 그에 비해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크게 인식하지 못한 채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었다[27]. 이는 마치 메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처럼 생리적·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서야 사회적 욕구가 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신체 및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후의 전 영역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기의 정

서적 상실감과 사회적인 고립은 노후생활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므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28].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최은정[29]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노후준비가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고, 박현식[30]의 연구에서도 성공적 노화에 정서적 준비가 신체적, 경제적 준비에 비해 상대적인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김재희와 김옥[31]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노후준비가 노후준비 영역 중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맥락에서 노후준비를 바라보고자 할 때, 경제적·신체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사회적 준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사회적 지지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사회 속에서 타인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재화, 자원, 서비스 등의 물질적·도구적·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데, 이러한 행위와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어지는 긍정적 자원이 사회적 지지이다[32].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이웃 및 지역사회 등에서 정서적 도움과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33]. 사회적 지지는 노년기에 겪게 되는 부정적 상황을 완화시킴으로써 노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 기제로 작용될 수 있다. 노인에게 사회적 지지는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소외되지 않게 해주며,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까지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34].

이처럼 사회적 지지가 환경 속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이웃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자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원을 마련하고 계획하며, 정서·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라고 할 수 있어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된다.

사회적 지지는 상실된 기능과 역할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 장애를 보다 적게 하여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

며, 건강한 생활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데[35], 노인과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교통편의, 조인, 건강과 관련된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어[36] 장애인노인에게는 더욱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가족이나 친구이웃들의 사회 환경적 요인은 장애진행 과정에서 장애 진행을 가속화하거나 지연시키는 영향을 미친다[37].

사회적 지지는 그 대상에 따라 친구·동료 또는 중요한 타인 지지와 가족지지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17][38][39], 공동체 관계를 중시한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 상 사회적 지지 대상을 고려함에 있어 가족지지만만 아니라 친구이웃지지까지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40].

4.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성공적 노화, 사회적 지지의 관계

노후준비활동을 하면 할수록 성공적인 노화를 높여 주며, 다차원적인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성공적 노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0][41].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 요인은 신체적,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준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42]. 이처럼 현재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성공적인 노화와 깊은 상관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 Rowe와 Kahn[16] 모델의 구성요소를 보면 성공적 노화가 노후준비 요소와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적 노후준비를 한다는 것은 신체 인지기능이 좋은 삶을 사는 것과 연결되며, 사회적 노후준비를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사회 활동과 사회참여를 하는 것과 같다 [43]. 이밖에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후준비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11][13][14][30][44].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사회적 지지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16]. 사회적 지지를 가족지지와 친구이웃지지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에서도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가족지지와 친구이웃지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

을 나타냈다[39].

한편,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인 노화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주요한 연구주체로 다루어져 왔다[45]. 실제로 Rowe와 Kahn[51]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 모델에서도 가족력, 사회적 연결, 접촉, 지지 같은 관계망은 신체·인지 기능, 심리적 기능, 사회적 활동 등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설정되어 왔다[46]. 노인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기존 연구의 동향을 정리하고 내용을 분석한 박영란과 박경순[47]의 연구결과 노화와 관련된 14편의 논문에서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는 다수의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사회적 지지를 가족지지와 친구이웃지지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에서도 가족지지와 친구이웃지지는 모두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17][38][39].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를, 매개변수로는 사회적 지지를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다시 가족지지와 친구이웃지지로 구분하여 다중평행매개효과 구조를 형성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은 [그림 1] 및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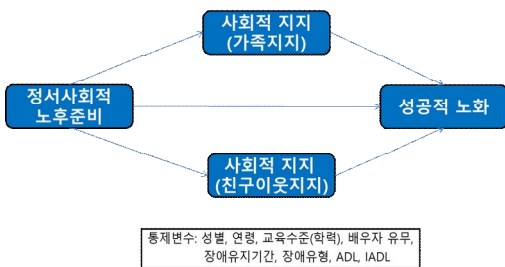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연구가설

가설		내용
가설 1	1-1	장애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가족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장애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친구이웃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장애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3-1	장애노인의 가족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장애노인의 친구이웃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4-1	장애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간 가족지지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2	장애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간 친구이웃지지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 연구자료 및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KReIS) 본조사와 부가조사 자료이다. 관련 변인들 중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노후준비는 3차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4차 본조사이고,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성공적 노화는 4차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통합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사는 3차 부가조사 2010년, 4차 본조사 2011년, 4차 부가조사 2012년에 종단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총 8,600명의 응답자 중 3차 부가조사, 4차 본조사 및 4차 부가조사에 모두 응답을 실시한 대상자 중에서 만 50세 이상의 장애노인을 설정하였고, 최종 총 506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장애노인은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 모두를 포함하였고, 장애여부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판정을 고려하여 전문의로부터 장애인단을 받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1 종속변수: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는 4차 부가조사에서 조사된 문항으로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하여 김미혜와 신경림[48]이 개발한 한국형 성공적 노화 척도 30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심리적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초

점을 두어[8]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과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으로 구성하였고, 사회적 측면에서 한국노인들의 경우 가족맥락이 성공적 노화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49] 부부 간의 동반자적 삶과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을 포함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 변수로 측정하기 위해 전체 항목을 합산한 평균값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941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3.2 독립변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독립변수인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후 생활 유지하기 위한 준비과정[10]으로서, 3차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KRelS)이 자체 개발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평균값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805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매개변수: 사회적 지지

국민노후보장패널(KRelS)의 사회적 지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능적 차원에서 측정하였는데, 각 관계망의 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수 측정에 있어 사회적 지지를 친구·동료 또는 중요한 타인 지지와 가족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선행연구[17][38][39]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를 친구·이웃지, 가족지지로 구분하여 조작적 정의하였다. 선행연구[50]를 참조하여 친구·이웃지지는 친구관계, 이웃관계의 만족도 2문항을 변수 계산하여 평균값을 척도로 측정하였고, 가족지지의 경우 부부관계, 자녀관계, 형제관계의 만족도 3문항을 변수 계산하여 평균값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가족 지지가 .849, 친구·이웃지 .814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초기에는 성공적 노화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영향변인 또는 통제변인으로 설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5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우선 통제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삼았다. 성공적 노화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학력), 배우자유무가 해당된다. 성별에서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더미코딩 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로 측정하여 연속 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교육수준(학력)은 무학에서 대학원까지 조사한 자료를 교육연수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배우자유무는 가족구성 항목에서 유배우자와 무배우자를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고, 배우자가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더미코딩 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장애특성을 추가하였다. 장애유지기간은 조사시점에서 장애발생시점을 제한 연수로 나타냈고, 장애유형¹⁾은 외부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였고[52], 비율이 가장 높은 외부신체기능장애를 기준으로 더미코딩하였다. ADL과 IADL은 혼자서 할 수 있음 1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2점, 혼자서 할 수 없음 3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8].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v2.16을 활용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 간의 상관분석과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사회적 지지, 성공적 노화 간 영향력(가설 1~3)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1) 외부신체기능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장애 : 심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간 가족지지 및 친구·이웃지지의 평행다중매개효과(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²⁾의 방법으로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06)

변인	인원	비율(%)	M(SD)
성별	남성	242	47.8
	여성	264	52.2
연령	50 ~ 59세	83	16.4
	60 ~ 69세	184	36.3
	70 ~ 79세	182	36.0
	≥80세	57	11.3
배우자 유무	있음	350	69.2
	없음	156	30.8
교육 수준	무학	102	20.1
	초등학교 이하	201	39.7
	중학교 이하	83	16.4
	고등학교 이하	101	20.0
	전문대학교 이상	19	3.8
장애 유형	외부신체기능장애	437	86.4
	내부기관장애	46	9.1
	정신적 장애	15	3.0
장애유지기간	응답	495	97.8
	무응답	11	2.2
			10.17 (10.10)
ADL	506	100	1.20 (.44)
IADL	506	100	1.36 (.57)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특성은 [표 2]와 같다. 우선 분석대상자 506명의 성별 분포를 보면

2)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회귀분석에 기반을 둔 Baron과 Kenny[53]의 접근법이 지난 30여 년 간 수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이 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최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54].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Hayes[55]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분석과정을 제외하였다. 둘째, 간접효과가 정규분포를 따지 않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Bootstrapping 방식으로 오차 및 신뢰구간을 추정하고 간접효과(Indirect Effect)의 유의성을 파악하였다.

남성 242명(47.8%), 여성 264명(52.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은 50세 이상 59세 이하인 50대 83명(16.4%), 60세 이상 69세 이하 60대 184명(36.3%), 70세 이상 79세 이하 70대 182명(36.0%), 80세 이상이 57명(11.3%)이고, 전체 평균 연령은 68.75세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50명(69.2%)으로 '없다'고 응답한 경우 156명(30.8%)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가 201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무학 102명(20.2%), 고등학교 이하 101명(20.0%), 중학교 이하 83명(16.4%), 전문대학교 이상 19명(3.8%)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의 경우 외부신체기능장애 437명(86.4%), 내부기관장애 46명(9.1%), 정신적 장애 15명(3.0%)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지기간은 10.17년, ADL과 IADL은 각각 1.20점과 1.36점을 나타냈다.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조사대상자의 노후준비, 삶의 만족도, 성공적 노화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고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 수준을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57점(SD=.73)으로 나타나 보통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가족지지(M=3.34, SD=.66)가 친구·이웃지지(M=3.27, SD=.69)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노화는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3.17점(SD=.65)으로 보통보다 약간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3.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N	M	SD	왜도 (SE)	첨도 (SE)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463	2.57	.73	-.02 (.11)	-.10 (.22)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493	3.34	.66	-.588 (.11)	1.20 (.22)
	친구·이웃 지지	496	3.27	.69	-.521 (.11)	1.04 (.21)
성공적 노화	506	3.17	.65	-.376 (.10)	.38 (.21)	

3.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주요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성공적 노화는 모든 주요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성공적 노화는 친구이웃지지($r=.329, p<.01$)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사회적 노후준비($r=.326, p<.01$), 가족지지($r=.319, p<.01$)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친구이웃지지는 가족지지($r=.556, p<.01$)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사회적 노후준비($r=.174, p<.01$)와는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가족지지는 매우 낮은 상관관계($r=.099, p<.05$)를 보였다.

표 4.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가족 지지	친구이웃 지지	성공적 노화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1			
가족지지	.099*	1		
친구이웃 지지	.174**	.556**	1	
성공적 노화	.326**	.319**	.329**	1

* $p<.05$, ** $p<.01$, *** $p<.001$

4. 가설의 검증 결과

4.1 가설 1의 검증

장애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성에 대한 가정으로 자기상관을 검토한 결과, 가족지지와 친구이웃지지에 대한 Durbin-Watson 지수는 각각 1.627과 1.692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며,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지수는 1.025 ~ 3.527로 모두 10보다 작아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친구이웃지지에 유의미한 영향($\beta_2=.141, p<.01$)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로써 가설 1-2가 채택되었다.

표 5.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구분	DV: 가족지지		DV: 친구이웃지지		
	B_1	β_1	B_2	β_2	
(상수)	2.761	-	2.845	-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072	.078	.124	.141**	
성별	.011	.008	.001	.001	
연령	.008	.093	.007	.090	
배우자유무	.230	.156**	.093	.067	
교육연수	.018	.110	.007	.045	
통계 변수	장애유지기간	.002	.031	.004	.057
	내부기관장애 (기준: 외부_장애)	.059	.027	-.145	-.068
	정신적 장애 (기준: 외부_장애)	-.566	-.113*	-.511	-.104
	ADL	-.497	-.283**	-.168	-.095
	IADL	.115	.089	-.221	-.171
	R^2 (Adj R^2)	.115 (.091)		.119 (.096)	
	F	4.881***		5.179***	

* $p<.05$, ** $p<.01$, *** $p<.001$

4.2 가설 2와 가설 3의 검증

장애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및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성에 대한 가정으로 자기상관을 검토한 결과, 가족지지와 친구이웃지지의 경우 Durbin-Watson 지수는 각각 1.725와 1.821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며,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지수는 1.026 ~ 3.538로 모두 10보다 작아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석결과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beta_1=.155, p<.01, \beta_2=.180, p<.001$)을 나타냈다. 이로써 가설 2가 채택되었다. 가족지지와 친구이웃지지 또한 성공적 노화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beta_1=.250, p<.001, \beta_2=.186, p<.001$)을 미쳤다. 이를 통해 가설 3-1, 3-2도 채택되었다.

표 6.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구분	IV:가족지지		IV: 친구이웃지지		
	B ₁	β ₁	B ₂	β ₂	
(상수)	3.151	-	3.222	-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129	.155**	.153	.180***	
사회적지지(가족지지)	.226	.250***	-	-	
사회적지지(친구이웃지지)	-	-	.178	.186***	
통계 변수	성별	.056	.046	.081	.065
	연령	-.013	-.180***	-.015	-.190***
	배우자유무	.260	.195***	.316	.237***
	교육연수	-.007	-.048	-.006	-.041
	장애유지기간	-.004	-.068	-.004	-.065
	내부기관장애 (기준: 외부_장애)	-.024	-.012	.021	.010
	정신적 장애 (기준: 외부_장애)	-.406	-.090*	-.206	-.044
	ADL	.071	.045	.041	.024
	IADL	-.215	-.184*	-.158	-.127
	R ² (Adj R ²) F	.294(.274) 14.227***		.292(.271) 14.332***	

*p<.05, **p<.01, ***p<.001

4.3 가설 4의 검증

장애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간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한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의 수는 5,000개였고, 이를 통해 95%의 신뢰구간으로 추정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한계(lower limit: LLCI)와 상한한계(upper limit: ULCI)를 구하였다³⁾. 우선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간 가족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Bootstrapping에서 신뢰구간(Confidence Level)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이 존재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간 친구이웃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Confidence Level)에서 하한한계(LLCI)가 .002이고, 상한한계(ULCI)가 .038로 나타나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장애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로서 친구이웃지지가 간접효과를 통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56], 가설 4 가운데 가설 4-2만이 최종 채택되었다.

표 7.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경로	Indirect effect	Boot. S.E.	신뢰구간(95%)	
			Boot. LLCI	Boot. ULCI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 가족지지 → 성공적 노화	.013	.009	-.001	.035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 친구이웃지지 → 성공적 노화	.013	.009	.001	.038

V. 결론 및 제언

주요 변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연구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장애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친구이웃지지에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1-2가 채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 간 정적인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14-16][44] 결과와 일치한다.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가족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특성과 같은 통제변수의 영향력이 독립변수인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장애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 관계가 검증되었다. 즉, 장애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3) 매개효과의 확인은 매개효과의 유의성 결과에서 나타난 신뢰구간 내의 간접효과의 하한한계(LLCI)와 상한한계(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해 가설 2가 채택되었으며,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들 [11][13][14][30]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가설 검증에서 가족지지와 친구·이웃지지 모두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 3-2가 채택되었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의 긍정적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17][18]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 중 친구·이웃지지만 간접효과를 통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가설 4-2가 채택 되었다. 박순조[39]의 연구에서도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사회적 지지가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여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족지지는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가족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리하면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성공적 노화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통해 성공적 노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장애노인과 마찬가지로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 및 제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장애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를 위한 방안을 확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직해야 한다. 장애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담당할 주체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별

히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노후준비 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문제와 장애문제에 직면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장애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장애노인이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를 탄실하게 할 수 있는 체계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장애노인은 보다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애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친구·이웃 관계망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 노인의 친구 및 이웃을 연계하는 자조모임 및 그룹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들과의 친밀성을 돈독히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21세기의 첨단기술 장비들은 장애노인이 적응적인 삶을 유지하며, 사회적 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장애노인의 친구·이웃지지를 강화하는데 휴대폰,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앞선 정보화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장애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장애노인들이 다양한 정보화·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장애노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전문의로부터 받은 장애인단 여부만을 설정하여 변인들을 조작정의한 데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직접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한다면 연구목적에 맞는 풍부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연구의 대상을 사회적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초기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후 중심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전 생애 발달의 관점에서 심리·사회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개념에 근거하여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다루었다. 둘째, 노후준비의 영역을 정서·사회적 방면에서 측정하였다. 즉, 다수의 선행연구가 주로 경제적 노후준비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다르게 노후준비의 영역을 정서·사회적 측

면까지 확대하였다. 셋째,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노후준비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인노인의 정서·사회적 노후준비가 사회적 지지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물론 장애인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다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7.09.03, 2017.
- [2] 통계청, *2016 고령자통계*, 2016.
- [3]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2015.
- [4] 김성희, 이송희, 노승현, 정일교, *장애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5] 이준우, “고령화 사회에서의 장애인 복지전략,” *재활복지*, 제9권, 제2호, pp.1-28, 2005.
- [6] 김고은, 이종립, “장애노인의 이중차별경험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 역할수행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59권, 제12호, pp.257-280, 2013.
- [7] 박수경, 문수경,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신체 장애인노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제26권, 제1호, pp.77-89, 2005.
- [8] 이미정, *삶의 만족도가 장애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장애유지기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9] 김승완, 전지혜,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장애정도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90권, pp.131-162, 2016.
- [10] 박창제,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3호, pp.275-297, 2008.
- [11] 홍영준, 이정훈, “노후준비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생산적 활동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8권, 제4호, pp.91-110, 2014.
- [12] 홍금희, 하주영, “중년 전·후기의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 요소 및 노후준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9권, 제1호, pp.29-39, 2015.
- [13] 신근영,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노후준비를 매개효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20권, pp.65-91, 2016.
- [14] 신수민, “과거 노후준비가 노년기의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연구*, 제44권, 제3호, pp.57-83, 2013.
- [15] 정일영, “과거 노후준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9권, 제3호, pp.161-191, 2015.
- [16] J. W. Rowe and R. L. Kahn,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Random House, 1998.
- [17] 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노년기 사회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자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제20권, 제1호, pp.79-99, 2013.
- [18] 최해경,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성공적 노화 수준과 예측 요인 : 한국적 성공적 노화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1호, pp.193-2176, 2013.
- [19] 이영미,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 간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62권, pp.35-58, 2013.
- [20] L. M. Verbrugge and L. S. Yang,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Vol.21, No.4, pp.253-267, 2002.
- [21] 최성일, 노승현, 이의정,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 [22] 황주희, 김성희, 노승현, 강민희, 정희경, 이주연, 이민경, *장애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23] 박주영, 오혜경, “독거가구 고령여성장애인 생활

-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장애인 복지학, 제22권, pp.109-128, 2013.
- [24] S. Torres, “Relational values and ideas regarding Successful Agi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33, No.3, pp.417-432, 2002.
- [25] 정여진, 유나영, 김비아, 신현정, 정영숙, “한국인의 성공적 노화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노년학, 제34권, 제4호, pp.781-797, 2014.
- [26] 이정화, “광주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0권, 제2호, pp.275-289, 2009.
- [27] 강유진,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4호, pp.159-174, 2005.
- [28] 정주원, 조소연, “중장년층의 소득계층별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9권, 제4호, pp.19-33, 2015.
- [29] 최은정, *농촌노인의 노후준비 실태와 생활만족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30] 박현식,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후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8권, pp.281-302, 2012.
- [31] 김재희, 김옥, “노인의 노후준비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62권, pp.231-256, 2013.
- [32]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2.
- [33] 송기영, “노인의 장애유무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 재활복지, 제21권, 제1호, pp.71-95, 2017.
- [34] 윤은경, “노인의 차별경험과 사회적 활동 어려움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14권, pp.113-134, 2015.
- [35] G. G. Ayre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social support and positive health practices in middle adolescents,”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Vol.22, pp.94-102, 2008.
- [36] 김진영, *노인들의 인지된 건강상태, 사회적지지, 노인차별 및 무력감과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37] M. Wilson,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environmental variables associated with selfreported disability in community residing elders*, Johns Hopkins Univ. Doctor dissertation, 2005.
- [38] 이승희, 장형숙, 양영희, “중년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외상 후 성장,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제46권, 제5호, pp.744-752, 2016.
- [39] 박순조,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도·농간 비교연구*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40] 여미옥,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41] 김동배, 정규형, 이은진, “노인의 과거 노후 준비 정도와 준비유형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58권, pp.325-352, 2012.
- [42] 김주성, 최수일,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3호, pp.97-119, 2010.
- [43] 김미령, “준고령자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의 삶의 만족도 영향 및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62권, pp.257-288, 2013.
- [44] 김정희, 박지영,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9호, pp.210-222, 2015.
- [45] 임은의, 구본진, 임세현, “농촌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pp.567-590, 2014.
- [46] K. L. Chou and I. Chi, “Successful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54, No.1, pp.1-14, 2002.

- [47] 박영란, 박경순,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 :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노인복지연구, 제60권, pp.323-352, 2013.
- [48] 김미혜, 신경림,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5권, 제2호, pp.35-52, 2005.
- [49] 정여진, 안정신,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족관계 변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0권, 제2호, pp.535-550, 2010.
- [50] 정요한, 김동배, “은퇴노인의 경제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사회관계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제4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393-418, 2013.
- [51] 정여진, 안정신, “노인의 부부친밀감과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에 대한 자녀애착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제32권, 제1호, pp.185-206, 2012.
- [52] 남연희, 설진화, 이기량,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13.
- [53]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54] 이현웅, “국내의 HRD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고찰,” *The Korean Journal of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제16권, 제2호, pp.225-249, 2014.
- [55] A. F. Hayes,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2013.
- [56] A. F. Hayes,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 Vol.76, No.4, pp.408-420, 2009.

저 자 소 개

송 기 영(Kee-Young Song)

정회원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8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오산대학교 실용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노후준비